

특별 기고문

잘못된 ‘레이더’ 표기, 이제는 ‘레이다’로 바로 쓰자!  
- ‘레이다’ 표기를 국가 표준어로 개정하면서 -

곽 영 길

한국항공대학교 전자정보공학부

I. 개 요

오늘날 새로운 과학기술들이 우리의 생활주변에 등장하면서 과거에는 특정 기술 분야에서만 사용하던 외래어 전문 용어들이 일반인들에게 많이 대중화 되고 있다. 외래어 전문 용어의 발음과 표기는 전문 분야의 원문 발음 표기 방식을 존중하여 이를 국가 표준어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일부 전문 용어들은 아직도 원래 발음과 다르게 잘못 표기되어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오용되면서, 오늘날까지 전문 분야는 물론 교육적으로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레이다’ 표기이다. 지난 1980년대에 외래어 표기 규정이 제정되어 통일하는 과정에서 ‘레이더’ 표기가 <국정 교과서 편수 자료>에 포함되면서 혼란이 시작되었고, 이를 바로잡아 ‘레이다’를 국가 표준어로 바꾸는데 거의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관료의식이 강한 우리사회에서는 관습적으로 잘못 사용해온 전문 용어의 ‘모음 표기’ 하나도 바로 잡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본 기고에서는 과거 수십 년 동안 관행적으로 잘못 사용되어 온 “레이더” 표기를 개정하여 국가 표준어를 “레이다”로 표기하도록 심의 결정하는 경위를 소개하면서, 레이다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본 개정은 2014년 8월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어 심의회를 통과하여 2015년도 판 국립국어원의 표준 국어대사전을 수정하였고, 개정된 표준 표기를 시행하도록 고시되었다. 한국전자과학회 레이다 연구회에서는 창립 이래로 십여 년 동안 연구회의 숙원 사업으로서 ‘레이다’ 표기를 바로잡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최근

3년 동안 ‘레이다 표준어 개정 추진 위원회’를 결성하여 주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및 국립국어원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수차례 건의서 및 연대 서명서 등을 제출하였고,<sup>[1]</sup> 수차례의 국어심의회를 거듭한 끝에 최종심의를 통과함으로써 마침내 ‘레이다’ 표기를 국가 표준어로써 ‘원칙적 표기’로 공식 개정하게 되었다. 개정된 국가 표준어는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실효가 없다. 개정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학계는 물론 정부나 연구기관, 언론, 방송에서조차도 ‘레이더’ 표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기고에서는 먼저 RADAR의 정의와 표준어 개정 필요성을 소개하고, 개정 근거를 제시한다. 그리고 개정 추진 경위와 국어 심의회 결과 내용을 소개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을 공유함으로써 레이다 표준어 개정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레이다 표준어 개정 근거

2-1 RADAR 외래어 정의

RADAR 용어는 원래 ‘RAdio Detection And Ranging’의 영어 약어로서 외래어이며, 주로 전자 전파 공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로서 사전적인 의미는 ‘전파를 이용하여 표적을 탐지하고 거리를 측정하는 장치’를 뜻한다<sup>[1]</sup>. 그러나 ‘레이다’의 용도가 대중화되면서 일반 사회 분야에서도 새로운 정보를 탐색하는 의미로서 일반인들이 많이 인용함에 따라 일반 보통명사 단어로써 소문자 ‘radar’로 표기하기도 한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서 radar의 발음은 정확하게 [ˈreɪdɑː(r)]

본 ‘레이다’ 표준어 개정 추진에 성원을 보내주신 한국전자과학회 및 레이다연구회와 개정 서명에 동참해주신 산학연관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로 표기되어 있고, 국제적으로 모두 이와 같이 발음한다. 국제적인 발음 기호에 따라 미국과 영국식 발음을 우리말로 가장 유사하게 표기하면 “레이다”로 발음이 된다.

원래 ‘레이더’ 발음은 ‘침입자’를 뜻하는 ‘Raider’의 영어 발음과 똑같다.

## 2.2 표준말 개정 필요성 제기

외래어를 표기할 때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더구나 전문 분야의 과학기술 용어인 경우에는 최대한 전문성을 존중하여 원어 발음에 충실하게 표기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이다. 특히 RADAR는 보통명사도 아니고 영어 약어이며, 전문 용어이므로 일반적인 외래어 표기 방식과는 차별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도 1960년대 RADAR 외래어가 처음 도입되던 시기에는 원래대로 ‘레이다’ 발음 표기를 사용하였다. 예전 우리말 국어사전(61년판 민중서림 국어대사전 등)에 기록되어 있으며, 전문 분야에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레이다’로 표기하고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1987년 정부에서 외래어 표준말을 일제히 정비하는 과정에서 <국정 교과서 편수> 자료에 ‘레이더’를 표준 표기로 잘못 제시되면서 ‘레이더’ 표기가 확대되고, 국립 국어원 표준 국어대사전에도 ‘레이더’로 등재되었다. 그 이후로 ‘레이더’ 표기가 교과서, 정부 공식 문서 등에 사용되면서 원래 표준 표기인 ‘레이다’ 표기가 줄어들고, 두 가지 표기가 양립하면서 사용자들에게 많은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여 왔다. 잘못된 국가 표준어는 당대의 혼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과학기술 분야의 교육과 연구 등 후학들에게도 잘못된 유산을 남겨 줄 위험이 크기 때문에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레이다’ 표준 표기로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sup>1)</sup>.

## 2.3 “레이다” 발음 표기에 대한 타당성 근거

### 2.3-1 국제적 발음표기 근거

‘RADAR’ 외래어 용어 정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서 radar의 발음은 정확하게 [ˈreɪdɑː(r)]로 표기되며, 국제적으로 미국과 영국식 발음을 우리말로 가장 유사하게 표기하면 “레이다”로 발음된다. 물론 외래어를 우리말로 표기하는 경우, 원어 발음을 정확하게 표기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과학기술 약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발음 표기를 근거로 표준화하는 것이 통례다. 참고로 ‘Oxford Dictionary’에는 다음과 같이 발음이 표기되며, 설명이 되어 있다:

Radar[ˈreɪdɑː(r)]: a system that uses radio waves to find the position and movement of objects, for example planes and ships, when they cannot be seen: *Radio Detection And Ranging*. 따라서 “레이다” 발음 표기가 타당하다.

### 2.3-2 외래어 발음표기 근거

RADAR 외래어는 초기부터 국어사전에 ‘레이다’로 표기하여 왔고, 현재까지 일부 국어사전에는 동일하게 표기하고 있다. ‘국어대사전’(1961. 민중서림 발간), ‘우리말 큰 사전’(1991. 한글학회, 어문각 발간)에는 표준말로 표기되어 있다. 국내의 학술, 연구 등 여러 분야 자료에서도 예전부터 ‘레이다’로 표기되어 왔다. 따라서 ‘레이다’ 표기가 타당하다.

### 2.3-3 국내 유사표기 외래어 근거

RADAR와 유사한 영어 전문용어 약어를 외래어로 표기한 SONAR(SOUND Navigation And Ranging)라는 장치가 있다. RADAR는 공기 중에서 전파를 이용하여 물체를 탐지하는 장치이지만, SONAR는 수중에서 음파를 사용하여 물체를 탐지하는 장치다. SONAR의 표기는 예전 “우리말 큰 사전”이나 현재의 “표준국어대사전”에도 모두 “소나”라고 발음대로 표기하고 있다. 따라서 일관된 외래어 표기 규칙을 준용한다면 RADAR 도 ‘소나’처럼 ‘레이다’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 2.4 “레이더” 표기에 대한 오류 타당성 근거

### 2.4-1 외래어 표기방식 통일에 따른 오류 가능성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준용하고 있는 규칙 가운데 ‘ㅏ’ 발음을 ‘ㅑ’ 발음으로 통일한 예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영어의 보통명사인 Digital, Data, Center 등은 과거에는 ‘디지털’, ‘데이터’, ‘센터’로 표기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디지털’, ‘데이터’, ‘셴터’로 표준말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규칙을 모든 외래어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다보니 전문용어인 RADAR도 보통명사로 오인하여 ‘다’ 발음을 ‘더’ 발음으로 바꾸게 되고, ‘레이다’를 ‘레이더’로

표기하는 오류가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sup>[1]</sup>.

#### 2-4-2 외래어 전문약어 표기에 따른 오류 가능성

전문분야 외래어 중에서 “레이더”와 유사하게 혼동을 줄 수 있는 “레이저”라는 약어 용어가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RADAR”는 “RADio Detection And Ranging”의 약어이며, “LASER”는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의 약어이다. 따라서 “LASER” 약어의 끝에 “ER”이 있으므로 원음 그대로 “레이저”로 표기하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RADAR”는 끝에 “소나”처럼 “AR”로 약어가 끝남에도 불구하고, “레이더”로 잘못 표기되어 있다. 이는 유사 용어와 혼동하여 오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sup>[1]</sup>.

#### 2-5 외래어 “Radar” 단어 의미 수정 필요

영어 약어인 “Radar”는 외래어로서 전문용어이므로 표준국어대사전에 그 단어의 뜻을 전문 약어에 충실하게 설명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외국 전문사전의 설명과 달리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즉, 레이더(radar): 「명사」 『물리』 목표 물체를 향하여 마이크로파를 발사하고, 그 반사 파동을 받아서 물체의 상태나 위치를 수상관(受像管)에 비춤으로써 목표 물체를 찾아내는 장치. ≍전탐기·전파 탐지기. radio detecting and ranging. 그러나 Oxford Dictionary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Radar: a system that uses radio waves to find the position and movement of objects, for example planes and ships, when they cannot be seen: *Radio Detection And Ranging*. 또한 ‘Wikipedia’에서는 국제 표준은 아니지만 통용하는 단어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Radar is an object detection system which uses radio waves to determine the range, altitude, direction, or speed of objects.

외래어의 의미는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의 표준사전에 표현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위의 3가지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설명하는 Radar의 의미는 원래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 같다. 원래 RADAR 약어가 ‘Radio Detection and Ranging’이므로 ‘전파를 이용하여 물체를 탐지하고 거리를 측정하는 장치’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좀 더 기

술적으로 표현하면 ‘전파를 이용하여 원거리 물체에 대한 거리, 각도를 측정하여 위치를 탐지하고 이동물체의 속도를 측정하는 장치’라고 설명할 수 있다.

### III. “레이다” 및 “레이더” 용어 혼용 현황

#### 3-1 언론의 Radar 용어 표기

방송과 언론 매체들은 Radar에 관련되는 기사들이 뉴스로 보도될 때 과거에 표준어로 제정된 ‘레이더’ 표기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왔다. 매일 저녁 TV 뉴스 방영에서 기상예보할 때 ‘레이더 영상’이라고 자막에 잘못 표기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뉴스에 보도되어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 모았던 레이다 관련 기사들도 모두 ‘레이더’로 표기되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예로 들면, 최근 차세대 전투기 도입 및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KFX)과 관련한 항공기 탑재 AESA 레이다, 북한의 미사일 방어용 다기능 레이다, 연평도 도발 시 북한의 장사정포 포탄을 탐지 추적하는 대포병 레이다, 천안함 폭침 시 함정에서 북한의 반잠수정을 탐지 추적한 대공탐색 레이다, 세종대왕함에 탑재된 장거리 조기경보 레이다, 한반도 상공을 감시정찰하는 조기경보 레이다의 도입, 우주 물체를 감시하는 우주 천체 레이다, 기상이변으로 폭우, 폭설을 감시하는 강우 레이다, 항공기 이착륙에 필수적인 항공 교통 관제 레이다와 공감합시 감시 레이다, 아리랑 5호 위성에 탑재한 국내 최초의 위성 영상 레이다(SAR), 무인항공기 및 드론에 탑재하는 영상 레이다 국제공항에 설치된 검색 보안용 인체 검색 레이다, 교통량을 측정하는 도로 교통용 레이다, 차량의 충돌방지를 위한 자동차 레이다 등 수 없이 많은 레이다 관련된 언론 방송 기사들은 모두 ‘레이더’로 표기되어 있다.

#### 3-2 Radar 용어 표기 변천 현황

1987년 <국정 교과서 편수> 자료 개정 이전에는 우리말 국어대사전(1961, 민중서림)에 ‘레이다’로 표기되어 있었다. 1961~1986년 기간 동안 두 가지 용어 표기가 혼용되어 있었으나, 신문 지상에 출현된 Radar 표기에 대한 샘플조사 결과는 ‘레이다’가 2,487건, ‘레이더’ 표기가 1,344건으로 ‘레이다’ 표기가 두 배 이상 많았다. 그러나 1987년 이후에는 ‘레이

더' 표기가 확대되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도 '레이더'로 등재되면서 대부분의 국어사전들은 모두 '레이더'로 표기하였다. 대표적으로 91년도 금성출판사의 국어대사전, 94년도 민중서림의 국어대사전, 09년도의 고려대의 한국어대사전 등이 있다. 전문 과학기술 용어 사전에서도 '레이더'가 13건으로 '레이다' 3건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아졌다<sup>2)</sup>. 2013년 2월 기준으로 인터넷 구글 검색 결과, "레이더"가 8,740,000건, '레이다'가 1,270,000건으로 7배 이상 현재 사용이 급증하였다.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검색결과, 신문에서도 1981~2000년 사이에 '레이더' 사용이 점차 우세하여 한글워드프로세스에 '레이더'를 표준어로 보급되면서 1994년을 기점으로 거의 95~98% 수준 이상으로 '레이더'를 대부분 사용하게 되었다. 학술분야에서는 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에서 검색한 결과를 비교하면 학술논문 및 국내 학술지에서는 비교적 보수적으로 '레이다'와 '레이더' 표기를 거의 50% 수준으로 사용하는 현상을 확인하였다<sup>3)</sup>. 그러나 대부분 '레이더' 표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지만 많은 분야에서 사회 관행으로 표준표기를 사용함에 따라 점차 '레이더'가 표준표기로 빠르게 정착되어 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현재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네이버 사전에서 '레이다'를 검색하면 외래어 표준은 '레이더'로 되어 있고, '레이다'는 잘못된 표기로 명시하고 있다.

#### IV. 레이다 표준어 개정 추진 경위

##### 4-1 개요

한국전자과학회 내에서 필자는 2002년 4월에 레이다연구회를 결성하여 창립 위원장으로서 매년 레이다 워크숍과 단기 강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십여 년 동안 관련 산학연관군으로부터 '레이다' 용어 표준어 개정을 위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게 되었고, 잘못된 '레이더' 용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지만, 관련 정부 부처에서 쉽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12년도에 마침 국어 정책을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제1차관으로 부임한 필자의 친체를 통하여 전문가들의 의지를 전달하게 되면서 다시 용기를 내어 공식적인 추진을 준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2013년 1월에 한국전자과학회 레이다연구회에서 '레이다 표준어 개

정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고, 필자가 위원장을 맡아 본격적인 개정 추진에 착수하였다.

##### 4-2 개정 건의서 제출

2013년 2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어 정책과 및 국립국어원을 대상으로 학회의 공식적인 개정 건의서를 제출하게 되었다<sup>4)</sup>. 레이다 표준어 개정추진 위원회에서 준비한 '레이다 외래어 수정 건의서'는 A4 용지 5쪽 분량으로 이미 앞절에서 소개한 대로 Radar의 정의에서부터 개정 필요성과 '레이다' 표기 환원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과 '레이더' 표기에 대한 오류 가능성에 대한 근거 자료를 상세하게 제시하였고, '레이다' 표준어의 개정을 요청하는 주요 학계, 교육계, 연구계, 산업계, 정부 관련 산하기관 등의 명의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하였다. 민원 요지는 다음과 같다(1차 국어 심의회 자료 인용).

##### 4-2-1 민원 개요

- RADAR는 'Radio Detection And Ranging'의 약어로서 원래부터 '레이다'라는 표기로 우리말 사전에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고, 대부분 전문가들은 지금도 '레이다'라고 표기함.
- 국립국어원에서 '레이더'로 잘못 표기하는 바람에 RADAR 분야 종사하는 많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많은 혼란과 불편을 야기함.
- Radar 관련 학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레이더'를 '레이다'로 환원하여 줄 것을 공식 건의함.

##### 4-2-2 '레이다' 표기에 대한 타당성 근거

- 국제적 발음표기 근거: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reɪdɑː(r)]로 표기되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발음을 표기하면 '레이다'임.
- 국내 표기 근거: 초기부터 '레이다'로 표기하여 우리말 큰사전(1991)에도 등재되어 국내에서 통용되어 온 표기를 존중해야 함.
- 유사표기 사례: 수중에서 음파를 사용하여 물체를 탐지하는 장치인 SONAR도 전문 용어인데 '소나'라고 표기함.
- 약어 표기 근거: 특정한 분야에서 만들어진 약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발음을 근거로 발음하는 것이

통레이므로 ‘레이다’라고 발음하는 통례에 따라 표기함이 타당함.

#### 4-2-3 ‘레이더’ 표기에 대한 오류 가능성 근거

- ‘ㄱ’ 발음을 ‘ㄴ’ 표기로 통일하는 규칙을 적용하여 ‘레이다’를 ‘레이더’로 표기하는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 있음.
- 유사 용어인 ‘레이저’(LASER)와 혼동되어 RADAR는 ‘소나’처럼 AR로 끝나는 약어인데도 ‘레이더’로 잘못 표기했을 가능성이 있음.

#### 4-3 국립 국어원의 검토 의견

표준어 개정 민원제기에 대하여 2013년 2월 25일 국립 국어원으로 부터 개정 요청에 대하여 당장 표준어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부정적인 검토 회신을 받게 되었다. 검토 회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sup>2)</sup>.

- 가. ‘레이다’가 영어사전(옥스퍼드 등)에 제시된 발음에 부합하는 표기이고, 전문 분야에서 여전히 쓰이고 있기는 하나, 1987년 이후 ‘레이더’가 널리 보급되었고, 2010년 민원에 대하여 재심의까지 거쳤기 때문에 당장은 ‘레이더’ 표기를 바꾸기 어려운 상황임.
- 나. 전문 분야와 일반에서의 표기가 달라 생긴 사례 중의 하나로서 전문 용어 표준화 사업과 연계하여 유사 사례를 수집·검토하여 표기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임.
- 다. 뜻풀이는 사전정보 개정 절차를 거쳐서 반영 예정임(사전정보보완심의회).
- 라. Detecting과 Detection은 모두 사용되어 사전 형식상 반영이 어려움.

#### 4-4 개정 서명 동의서 제출

예상한대로 국립 국어원의 부정적인 검토의견으로 인하여 표준어 개정은 당장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이 상태로는 국어심의회에 상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레이더 추진위원회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국립 국어원의 담당 실장을 만나서 진의를 파악하고,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설득하였다. 이어서 한국전자과학회(레이다연구회) 명의로 공식적인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2013년 7월에 개최

된 레이더 워크샵/단기강좌 행사에서 많은 참석자 및 관련 기관 단체들로부터 개정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고, 또한 연이어 개최된 한국항공우주학회 항공전자부분회의 심포지엄에서 많은 서명 지지를 받아서 약 200여건의 서명 동의서를 해당 부처에 전달하면서 개정 의지를 늦추지 않았다. 2013년 12월에 예정된 차기 국어 심의회 일정에 맞추어 개정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다행히 안전에 상정된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겹쳐서 국어 심의회는 2014년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 4-5 제 1차 국어 심의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어 정책과에서 주관하는 2014년 1차 국어 심의회가 2014년 2월 5일에 국립 중앙박물관 교육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회의 안건은 ‘레이더’ 외래어 표기 심의의 외 5건으로 되어 있었다. 필자는 심의회 안건으로 상정된 Radar 표준어 개정에 대한 전문가 설명을 요청받고, 배석자로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다. 심의 위원들은 대부분 국어 어문 규범 계열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회의 자료집에 수록된 ‘레이더’ 표기 변경 심의 안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sup>3)</sup>.

##### 4-5-1 심의 요청 배경

- RADAR 를 ‘레이다’로 표기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민원 접수(2013. 2).
- 학계(한국전자과학회, 한국항공우주학회)의 레이더 표기 개정 동의서 접수(2013. 7 학회 회원 196명 서명 첨부)
- 표기 기준이 되는 원어 발음에 부합하는 표기는 ‘레이다’임을 확인함.
- 정부 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 위원회 및 규범 정비 위원회 등에서도 변경에 긍정적이었으나, 일반에 널리 알려진 단어이어서 신중한 검토 위해 심의 요청함.

##### 4-5-2 레이더 표기 검토

- 주요 영어사전(옥스퍼드, 롱맨, 캠브리지, 웹스터)에서 [reidar:(r)] 로 발음 제시. 이에 따르면 외래어 표기는 “레이다”임.
- ‘87년 교과서 편수 자료에서 “레이더” 제시 이후 신문 등에서 ‘레이더’로 표기하게 되며,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수용함.

- 신문, 인터넷, 전문 용어 사전에서 “레이더” 표기가 우세함. 특히 출판물 등에서는 '86년 외래어 표기법 제정 이후에 표기 규범 준수 추세.
- 일반인에게는 ‘레이더’가 많이 보급되었으나, 전문 학술분야에서는 여전히 ‘레이다’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 4-5-3 심의 시 고려사항

- 원어 발음에 가까운 표기가 ‘레이다’이고, 전문용어로 만들어진 단어임을 고려하면 해당 학계의 의견 존중 필요.
- ‘레이더’/‘레이다’ 복수 표기를 인정하는 방안이 있으나, 외래어 경우 복수 표기를 인정할 사례가 없음.
- 외래어에서 현실표기와 규범표기가 있음을 고려하면 향후 외래어 표기방향을 고려한 심의 필요.

#### 4-6 문화체육관광부의 1차 심의결과 공문

2014년 2월 문체부 국어 정책과로부터 제1차 국어 심의회 결과 공문(시행번호: 국어 정책과-390, 2014. 2. 13)을 받았다<sup>4)</sup>. 공문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해 귀 학회에서 우리 부로 요청한 ‘레이다’ 표준말 개정 안건이 2월 5일 국어 심의회 어문 분과에 상정되었습니다. 귀 학회의 광영길 교수께서 분과회의에 출석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레이다’ 표기를 수정하는 것의 정당성을 심의위원들에게 설명하였고, 심의위원들도 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문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레이더’ 표기 한 건만을 따로 심의하기보다 전문용어 중에서 ‘레이더’와 유사한 불일치하는 예들을 모아 일관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는 심의위원들의 합의가 있어 ‘레이더’ 표기는 다음 어문규범 분과에서 심의하기로 유보하였습니다.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오랜 시간 준비한 만큼 이번 국어 심의회 개최 결과에 대해 애타게 기다렸을 텐데 결론을 빨리 내리지 못한 점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레이더’ 표기를 안건으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1차 심의회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 4-7 제2차 국어 심의회

2014년 8월 29일 개최된 제2차 심의회에 추가적인 설명

이 필요하지 않다고 통보를 받고, 안건 자료를 전달 받았다. 안건 자료집에 기록된 처리 방안은 다음과 같이 1안과 2안으로 제시되었다<sup>5)</sup>.

- 1안: 원어 발음과 전문 분야에서 쓰임을 존중하여 표기를 ‘레이다’로 확정함. 원어 발음에 따른 표기 확정 사례와 언어별 표기 세칙 제정에 따른 표기 확정 사례 등이 있음.
- 2안: 관용 표기 ‘레이더’와 원칙 표기 ‘레이다’를 모두 인정함. ‘자장-짜장’의 경우 원칙 표기에 대해 관용 표기를 추가 인정할 사례이며, 기존의 복수 표기 인정 사례는 대부분 두 가지 발음이 국어에서 통용되는 경우에 해당함. 이상과 같은 두 가지 처리 방안에 대하여 본 학회 추진위원회에서는 잘못된 ‘레이더’ 표기를 폐기시키고, 1안이 결정되기를 기대하였다.

#### 4-8 문체부 국어 정책과의 심의결과 공문

제 2차 심의회의 결과를 상세하게 전달받지 못한 상황에서 필자는 2014년 후반기에 안식년으로 인하여 미국으로 출국을 하면서 한 동안 레이다 표준어 개정 문제를 접어두게 되었다. 2015년 여름에 귀국하여 관련 부처에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심의결과를 공식 요청하게 되었다. 2015년 11월 24일자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전자과학회와 한국항공우주과학회를 수신자로 공식적인 국어심의회 ‘레이더’ 표기 심의 결과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시행번호: 국어정책과-3319)을 받았다. 공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sup>6)</sup>.

- 귀 학회에서 우리 부로 요청한 ‘레이다’ 표준말 개정 안건을 2014년 제 2차 어문규범분과회의(‘14.8.29)에서 심의·의결한바,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RADAR’의 외래어 표기 심의 결과, ‘레이더’(관용적 표기) 및 ‘레이다’(원칙적 표기)를 인정하기로 함.
-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레이다’를 기본 표제어로 삼음. 끝.

이상과 같은 심의 결과에 따라 국립 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2015년 1월부터 ‘레이다’를 기본 표준말로 개정되었다. 개정 이후 ‘레이다’로 검색을 하면 기본 표제어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만, ‘레이더’를 검색하면 ‘레이더 = 레이다’로 되어 있어서 관용적 표기 용도로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정 공문은 한국전자과학회 및 한국항공우주학회 등에게 공식 전달하였고, 향후 ‘레이더’ 표준 표기를 학계는 물론 언론, 방송, 정부 산하 관련 기관 등에게 체계적으로 공지하도록 요청하였다.

#### 4-9 개정에 대한 소견

마침내 ‘레이더’로 국가 표준어를 개정되었지만, 아직도 잘못된 ‘레이더’ 표기를 완전히 폐기하지 못하고 여론을 의식하여 ‘관용적 표기’로 일부 인정된 것은 또 다른 문제로 남게 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모든 ‘레이더’ 용어 표기는 당장 폐기할 수는 없고, 한 동안 관습적으로 유지될 우려가 높다고 본다. 따라서 레이더 전문 분야에서는 적어도 ‘레이더’ 표준어를 모두 앞장서서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처음부터 개정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레이더’ 표기는 당시 정부에서 잘못 표기한 것이고 이에 대한 근거들을 제시하였다. 사실이 문제는 심의 대상이 아니고, 당시 주관 부처의 실책을 인정하고 직권으로 개정해야 할 사안이었다. 더구나 근년에 일반 단어인 ‘짜장면’을 갑자기 ‘자장면’으로 표준어를 변경하는 바람에 국민적 혼란이 야기되자 여론을 의식하여 ‘자장, 짜장’을 모두 복수로 인정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Radar는 일반 단어가 아니고 외래어 전문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복수 표기를 인정한 것은 외래어 표기 규칙에 위배되는 일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1차 심의회에서 분명히 ‘외래어는 복수 표기를 인정한 사례가 없다’고 하였는데, 이번 ‘레이더’ 개정으로 동일한 외래어를 이중으로 표기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레이더’ 발음은 ‘침입자’를 뜻하는 ‘Raider’의 영어발음이다. 사실상 ‘레이더’가 ‘레이다’를 침입하여 지배한 지가 30년이 되었다. 따라서 주무부처에서는 과거의 실책을 인정하고 잘못된 표기를 직권 상정하여 ‘레이더’ 표기를 완전히 폐기시킴으로서 더 이상 국민적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V. 결론 및 후기

본 기고에서는 과거 수십 년 동안 관행적으로 잘못 사용

되어 온 ‘레이더’ 표기를 개정하여 국가 표준어를 ‘레이다’로 표기하도록 심의 결정하는 과정을 소개하였다. 1987년 외래어 표기 규정이 제정된 이후에 잘못된 표기를 바로잡는데 거의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사실 이번 개정은 외래어 표기상 발생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하여 한 글자의 모음 ‘ㅓ’를 단순히 ‘ㅏ’로 바꾸는 일이었다. 그러나 비교적 관료의식이 강한 우리 사회 관습상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국가 사회도 미래 과학기술 시대에 잘 부응하기 위해서는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잘못된 것들은 우리 당대의 혼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 세기의 미래를 끌어 나갈 후학들에게 무거운 짐을 물려주게 되는 일이다. 올해부터는 모두 개정된 ‘레이다’ 표준어를 사용함으로써 제대로 된 한글 이름표를 달고 국가적인 첨단 레이더 기술 분야가 날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 참 고 문 헌

- [1] 광영길, "'레이더' 외래어 개정 건의서", 레이더 표준어 개정 추진위원회(한국전자과학회 레이더연구회), pp. 1-5, 2013년 2월 6일.
- [2] "'레이더(RADAR)' 표기 민원에 대한 의견", 국립국어원 어문연구팀, pp. 1-5, 2013년 2월 25일.
- [3] "'RADAR' 표기 변경 심의-국어 심의회 회의 자료(2014년 1차)",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pp.67-71, 2014년 2월 5일.
- [4] "국어심의회 심의결과 알림(공문 시행 국어정책과-390)", 문화체육관광부 국어 정책과, 2014년 2월 13일.
- [5] "'RADAR'의 외래어 표기 방안-국어 심의회 회의 자료 (2014년 2차)", 문화체육관광부 국어 정책과, p. 11, 2014년 8월 29일.
- [6] "국어심의회 '레이더' 표기 심의 결과 알림(공문 시행 국어정책과-3319)", 문화체육관광부 국어 정책과, 2015년 11월 24일.

≡ 필자소개 ≡

곽 영 길



1976년 2월: 한국항공대학교 항공통신공학과 (공학사)

1981년 2월: 한국과학기술원 전기전자공학과 (공학석사)

1987년 6월: 오하이오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공학박사)

1976년 3월~2001년 3월: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레이더/SAR 실장

1997년 2월~1999년 2월: 영국 Matra Marconi Space 위성 SAR 프로젝트 책임자

2001년 3월~현재: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전자정보공학부 교수 및 레이더연구소 소장

2002년 4월~2008년 12월: 한국전자과학회 레이더 연구회 위원장, IEEE Radar Society 위원

2006년 6월~2013년 12월: 한국항공우주학회 항공전자부문화 위원장,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2007년 9월~2008년 8월: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Dept. of Engineering Science, 교환 방문교수

2009년 1월~2011 2월: 사단법인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회장 (국회사무처 등록법인)

2009년 9월~2011년 12월: 국제영상레이다학회(APSAR 2011), General Chair,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위원

2013년 4월~2014년 12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전문 위원(미래창조과학부)

2014년 12월~2015년 8월: Naval Postgraduate School (미국 Monterey), 교환 방문교수

2010년~현재: IEEE AESS Korea Chapter, Chair

[주 관심분야] Radar System Design, Radar Signal Processing, Synthetic Aperture Radar, Collision Avoidance Radar for UAV & Automotive, Road Watch Radar, SDR Radar, and Jamming & Interference Rejection